

김경열 교수의 이사가는 거룩한 백성

제 4강: 거룩한 진영을 위한 법들(5-6장)

I. 강의 초점

- 1) 진영 배치 중에 왜 5-6장의 제의법과 나실인법이 선포되는가?
- 2) 성막을 중심한 진영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 3) 나실인 서원에 대해서 배운다.

II. 강의 내용

1. 정결해야 할 성막과 진영 (5장)

- 부정한 사람들의 추방(1-4절)
- 속건제 배상 규정(5-10절)
- 시죄법: 의심의 소제(11-31절)

진영 배치 중에 왜 이러한 법들이 선포되는가?

1) 부정한 사람들의 추방(1-4절)

레위기 15장의 유출 규례 보완

시체접촉, 나병, 유출병

* 공동체의 제의적 정결과 거룩 유지를 위함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 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민 19:14-15)

암시: 시체를 눈으로 보기만 해도 오염됨

유출병자 추방은 레 15장과 모순?

레위기 15장에서 유출증 환자는 추방 대상이 아님

민수기 5장의 경우는 “만성 유출증 환자”일 것

2) 속건제 배상 규정(5-10절)

레위기 5-6장의 속건제 보완

왜 느닷없는 속건제 규정?

보완된 내용: 속건제 배상을 받을 당사자가 없을 경우 해결책

* 공동체가 금전문제로 깨트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원래의 속건제 배상 규정(레 5:14-6:7)

남에게 물질적 피해를 줄 경우 속건제로 해결

- 1) 원금의 1/5, 즉 20%를 더하여 배상
- 2) 성소에 올라가 속건제 숫양을 바침

보충된 배상 규정: 배상해줄 사람이 사라진 경우(이사, 죽음, 전쟁 등)

- 1) 생존한 가족에게
- 2) 가족이 없으면 가까운 친척에게
- 3) 친척도 없으면 제사장에게

* 벌금을 물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반드시 금전 배상이 요구됨

3) 시죄법: 의심의 소제(11-31절)

아내의 불륜이 의심될 때 성소에서 검증받는 절차

* 공동체의 도덕적 정결과 거룩의 유지를 위함

시죄법(trial of ordeal)은 고대 근동의 관행

함무라비 법전 -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한 사실이 없는데도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신성한 강물에 뛰어들어야 한다” (제132조).

판정: 떠오르면 무죄, 안떠오르면 유죄

중세 카톨릭에서도 만연했던 악법

神明재판(神明裁判) 이라고도 함

성경의 시죄법은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

민수기의 시죄법인 “의심의 소제법”의 절차

- 1) 의심받는 아내가 보리 가루의 소제물을 준비해서 남편과 성소에 올라감
- 2) 제사장이 여인에게 성소의 흙을 섞은 “쓴물”을 먹임
- 3) 여인이 바친 보리 가루 소제를 제사장이 태움
- 4) 증상: 무죄 - 아무 증상없음

유죄 - 넓적다리(자궁)이 마르고 배(태반)이 붓고 불임

이 시죄법은 분명 여성 차별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고대는 “가부장적 사회”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구약 율법은 시대적, 문화적, 역사적 한계 속에서 본질을 담아 선포되었다.

만일 남자의 불륜이 의심된다면?

아내는 하나님께 정의로운 판결을 직접 호소했을 것.

아마 이 경우 시험이 필요없이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셨다고 볼 수 있다.

성경의 시죄법이 남편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예) 무고한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 모함을 하는 경우

판정의 오류 가능성은 없는가?

답변: 하나님의 판정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악용될 여지도 없다.

바로 이 점이 이방의 시죄법과 여호와의 시죄법의 차이

2. 나실인 규례 (민 6장)

남녀 구분 없이 나실인 서원 가능

종신 나실인과 기간 나실인

중간기의 기록들: 헬레나 여왕의 7년 서원 / 베르니스의 한달 서원

나실인 서원에서 금지된 것들: 술, 포도, 삭발, 송장 접촉, (부정한 것)

포도주와 독주(?) / 포도주와 포도즙

나실인이 송장을 만졌을 경우 재성별(아마 입례 의식도 동일)

- (1) 사체 접촉 후 7일째 되는 날 머리를 모두 민다(머리가 더럽혀졌기 때문).
- (2) 8일째에 **비둘기 두 마리**를 들고 성소에 올라가 제사장에게 건넨다.
- (3) 제사장은 그 두 마리를 각각 **속죄제와 번제**로 바쳐 그를 속죄한다.
- (4) 마지막으로 **일년 된 숫양을 속건제**로 바친다.
- (5) 이 날 그의 머리가 성결케 되면서 나실인의 삶을 다시 시작한다.

나실인의 환속 의례

제사	품목	기본 제물	수반되는 제물	
			소제: 밀가루 + 기름	전제: 포도주
번제		일년 생 숫양	1/10에바 + 1/4힌	1/4힌
속죄제		일년생 암양	1/10에바 + 1/4힌	1/4힌
화목제		숫양	2/10에바 + 1/3힌	1/3힌
음식 소제		두 종류의 음식: 무교병과 무교전병		

3. 제사장들의 축도

우리는 이 축도가 광야에서 떠도는 피난 상황에서 선포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하지 않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커다란 복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III. 오늘의 적용

- 1) 나 자신에게, 또 교회 안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심각한 더러움은 없는가?
- 2)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가 금이 가는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 3) 나는 오늘 교회 안에서, 또한 세상을 향해 나실인과 같은 성별된 삶을 사는가?